

여수, 중학생 타지역 진학률 4년 연속 감소

올 3학년 3860명중 207명 타지로... '내고장 학교 보내기' 성과

여수지역 중학생의 타 지역 고교 진학률이 최근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캠페인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 중학생 3학년 학생 3860명 가운데 타지로 진학하는 학생은 5.4%를 차지하는 207명으로 나타났다.

여수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관

유출률은 지난 2010년 384명에서 2011년 286명, 지난해 225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이다.

지난 2005년 고교 평준화 시행 이후 타 지역 진학 중학생수가 급증했으나 지난 2010년 민선 5기 출범 이후 '내 고장 학교보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된 여수시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우수 프로그램을 도입, 다양한 장학제도 시행, 학교급식 대상자 확대 등 전면적인 교육정책을 펴고 있다.

교육국제화특구육성계획에 따라 3개 분야 9개 단위사업이 오는 2017년까지 추진된다.

고교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장학금 지급, 학교별 특별 프로그램 운영비, 자율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기숙형고 등 명문학교 육성지원과 교원 사기진작사업 등 핵심사업에 42억 원이 투자되고 있다. 여수시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관·학 협력사업은 수시 맞춤형 입시전략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공교육 전문가들과 연계한 고교인재스쿨, 통합논술반, 서울대 미래인재학교, 영재겨울학교 등은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내 고교에 진학한 중3 우수학생에게는 1인당 350만원의 '관내고

진학장려금'이, 고교 2·3학년 상위 2% 학생에게는 1인당 100~200만원의 '우수인재장학금'이 지급되는 등 장학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시는 성적 우수학생들의 지역 학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 고교 진학장려금'을 성적에 비례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여건 마련을 위해 '여수학숙'도 운영된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940cm 높이의 구봉산 봉수대 전경. 한 눈에 광양만의 전경이 들어오게 설계됐다.

구봉산 전망대서 '광양만 한눈에'

115억 들여 준공

광양시가 백운산과 시가지, 광양항 등 시의 동서남북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구봉산 전망대 및 봉수대를 설치 준공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구봉산 권역을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총사업비 115억96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007년 사업 착수 이후 지난해 입도로 개설, 전망대, 봉수대, 주차장, 화장실 등의 관광 편의시설을 갖췄다.

광양만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망원경을 설치하고, 봉수대는 역사성을 고려해 회양(曉陽)에서 광양(光陽)이란 지명이 탄생한

940년(고려 태조 23년)을 의미해 높이를 940cm로 했다.

특히 봉수대는 세계 유일한 철아트 디지털로 광양을 상징하는 빛, 철, 매화, 향나무 등을 소재로 매화꽃이 개화하는 꽃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봉화 이미지를 담았다.

또 꽃잎은 12시간과 12개 음·면·동을 표현, 빛의 도시·철의 도시라는 광양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특수강과 LED 조명을 이용해 지역 특성을 살렸다.

봉수대와 전망대 사이 광장을 조성해 신년 해맞이 행사와 야외 공연, 산상 음악회, 결혼식 등 다양한 이벤트 장소로 활용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164명 장학금 1억1천만원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순천시가 설립한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조중훈 순천시장)는 지난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장학생 164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179명 모집에 243명이 지원해 학업성적과 재산세를 고려한 공정한 서류심사를 거쳐 성적우수, 예체능 특기자, 다자녀, 학력신장, 청향(서정현 기부) 장학 부문 등으로 초등학생 9명을 포함 총164명을 선발해 1억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단체의 장학금 기탁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호남약품(양제승) 500만원, 이마트 순천지점(우만호지점장) 500만원, (주)신성메이지글로벌(강영춘) 500만원, (주)왕우건설(심문식) 500만원, 순천중돈(황금영) 200만원, 순천시역비자원화 영농조합법인(장용만)에서 200만원 등을 기탁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여수 빛노리아' 겨울축제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가 볼 만한 전국 겨울축제'로 선정된 '여수 빛노리아'가 20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내년 3월 4일까지 75일 간 운영된다. 점등식을 앞두고 시흥 가동중인 빛노리아의 야경. <여수시 제공>

고흥, 송아지 등록 전산시스템 활용 품질 개선

고흥군은 17일 "두원면의 한우 개량단지와 연계해 송아지 등록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면서 고품질 송아지가 품질이 크게 개선돼 두당 30만원 이상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송아지 생산 축산농가가 같은 품질 향상으로 인해 연간 20여억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고급 친환경 조사료 생산기반을

활용해 자체 조사료를 공급하면서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고품 송아지는 사용 중인 지원된 한우특성화 계획 교배사업으로 1등급 우수 수소만 지원 받고 있으며, 매달 3회 가축시장을 개장해 월 600두 이상 거래로 송아지 생산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전북

가야고분 역사적 가치 재조명

남원시, 고기리 제철유적 발굴 조사

남원시가 지역 내 가야고분에 대한 학술조사와 정밀지표조사 등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지정 문화재로의 승격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17일 "가야 유적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남원지역 제철유적 중 고기리 제철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과 체결해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 동부권에는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했던 중심세력이 자리했고 대표 유적이라 할 수 있는 남원 두라리 및 유곡리 고분군을 비롯한 월산리 고분군, 건지리 고분군 등 이 지역의

많은 유적들이 한국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아 왔다.

시는 지난 2011년 남원 두라리 및 유곡리 고분군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해 40기의 고분을 확인했고, 이중 32호 고분에 대해 올해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상위 계층의 고분에서만 확인되는 금동신발과 함께 백제 무령왕릉 수대경(국보 제161호)과 많은 공통점을 보이는 청동거울과 함께 토기 40여점을 비롯해 금·은·금동 장식품 포함한 철기류 100점 이상이 출토돼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순창,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난 해소

순화·남계리에 각1곳씩

순창군이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심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군은 1가구 2차량시대 및 관광객 300만명 방문 등으로 급증한 주차난이 계속되고 있는 순창을 순화리와 남계리에 각각 1곳씩 선정, 내년에 지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 4100만원을 내년도 분예산에 편성했으며, 현재 순창군의회 예결위에서 심의 진행중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1~2년 내 개발 계획이 없는 방치된 공터에 환구적 시설이 아닌 땅고르기와 쇠석포설, 노면다짐 시공까지만 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100개를 조성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또 방치된 공터지의 무성한 잡초와 각종 생활쓰레기 등 공사 폐자재를 집중 수거해 폐적한 도시미관을 함께 가꾸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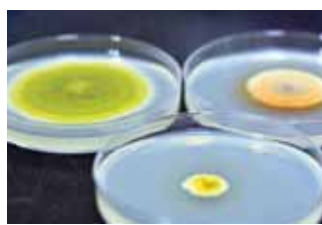
순창군은 내년부터 주택지 내 공터나 빈 집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계약을 체결해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말까지 해당 토지소유자와 사용 협의를 마치고 내년 초 지상권 계약을 체결, 3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상권 계약 기간중에 소유자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지상권을 반환해 주기로 하고, 반면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계약을 이행할때는 주차장 쇠석포설 등 투자된 비용 일부를 일괄계산해 순창군에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문화 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순창, 기능성 토착미생물 자원화 착수

정부 기술개발 선정 10억5000만원 확보



순창군이 지난 9월 새로 발견했다고 발표한 황국균(Aspegillus oryzae), 홍국균(Monascus ruber), 금화균(Eurotium sp.)

순창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능성 토착미생물 자원화' 사업이 '2013년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돼 10억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지역농식품산업 클러스터 선형연구과제 성과를 활용에 기획했으며, 전북대 RRC(지역혁신연구센터), 원광대 대사상질학연구소, 순창군 발효미생물관리센터, (농)순창장류 주식회사가 참여한다. 사업비는 3년간 국비 10억5000만원 등 총 15억9000만원이 투입된다.

그 동안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상당한 미생물 자원을 확보했으나, 제대로 된 산업화 정보

부족으로 기업체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군 관계자는 "순창을 대표하는 고초균과 유산균, 효모, 곰팡이의 자원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라며 "향후 순창장류의 대외적 기능적 차별화를 위해서도 순창장류에 맞는 특별한 기능성을 가진 토착 발효미생물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시장에 인종합스포츠센터 기공

59억 투입 내년 6월 완공

정읍시는 지난 16일 정읍시장에 인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스포츠센터는 정읍시장에 인종합관 바로 옆 수성동 966-3번지 일원에 건립된다.

국비 12억3000만원과 도비 14억 1000만원, 시비 32억6000만원 총사업비 59억원이 투입된다.

3336㎡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3138㎡의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규모이고, 지하에 목욕탕과 수중치료실 및 휴게실, 1층에는 체육관과 탁구장, 체력단련실이 들어선다.

또 2층에는 물리치료실과 다목적실, 프로그램실이 조성된다.

완공은 내년 6월 예정이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유익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읍=백기섭기자 parkis@

다. 한편, 임시주차장 외에도 내년 6월까지 순창을 소재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주차장 4개소에 100면이 새로 조성된다.

서화중 농촌주거담당은 "열악한 군 재정으로는 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드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주변에 방치된 공터지를 보고 임시주차장을 만들 것을 착안했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단신

고창, 군 청사부지 무상양여 22억 재정 확충

고창군은 17일 "지난 1923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군 청사부지 5497㎡(1663평)를 90년 만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군 재정 22억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여로 공시지가 22억원(실거래가 약 32억원)의 재정을 확충하게 됐으며, 연간 대부료 5400만원을 절감하게 됐다.

군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경기 도 성남시 소재)에서 당시 내무부로부터 1961년에서 1965년 사이에 '시군'이 공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지 양여'에 대한 보관 문서 가운데 '고창군 공시지가 22억원(실거래가 약 32억원)의 재정을 확충하게 됐으며, 연간 대부료 5400만원을 절감하게 됐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남원다문화협동조합, 캄보디아서 모국자원봉사

남원다문화협동조합은 지난 12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조합원 스링 찬다씨의 고향인 캄보디아 프레벤을 방문해 제2회 이주여성모국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에는 조합원과 자원봉사자 6명이 함께했다. 이들 다문화협동조합 자원봉사단

은 주민들과 화교주변 환경정비를 펼치고 조합 수익금과 성금으로 마련한 장학금과 화용품, 의류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또 현지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통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뜻깊은 문화교류도 펼쳤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한국씨엔티, 장학금·체육진흥기금 1억 기탁

17일 한국씨엔티 최상호 회장과 김훈석 순창방직공장 대표이사, 이동호 순창공공장이 순창군수실을 방문해 순창군 육전장학회로 5000만원, 순창군체육진흥기금으로 5000만원 등 1억원의 성금을 냈다.

한국 씨엔티는 지난 2010년 순창군 풍산농공단지에 입주해 연간 9000

의 고급면사를 생산, 400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기탁 성금은 관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지원 및 장학금 지급으로 쓰일 예정이며, 체육진흥기금은 관내 체육진흥과 우수선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군산시, 20개 스포츠대회 개최 100억 파급 효과

군산시는 17일 "올해 20여개의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를 열어 100여억 가량의 직·간접 경제 파급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설날 장사씨름대회를 필두로 금석배 초·중학생 축구대회, 군산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IFBA 박지현 세계타이를 매치 등 매머드

급 스포츠대회 20여개를 개최 했다.

시는 58일의 대회 기간에 3만7000여명이 군산을 방문해 100여억원대의 경제 파급 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전주·군산=백기섭기자 전북취재본부장 박지현 세계타이를 매치 등 매머드